

12

vol. 559

월간 내일



올 한해 월간내일 People 인터뷰는 20p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행복 일터

Intro

You did
a great job

희망 일터

슬기로운 한국판뉴딜 생활
데이터 리터러시,
누구나 기를 수 있어요!

힐링 일터

미디어 속 노동읽기
유미의 세포들 속 일터풍경
함께 살펴볼까요?



표지이야기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함차게 점핑점핑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59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04
You did
a great job

행복 일터

04 Intro
You did a great job

08 Topic
아듀 2021 통계로 돌아보는
고용노동 정책

12 System
2021 고용노동 정책
세대별로 돌아보기

20 People
2021년 월간내일
인터뷰이들의 말말말

희망 일터



28 슬기로운 한국판뉴딜 생활
데이터 리터러시, 누구나 기를 수 있어요!
-K-디지털 크레딧 '빅데이터 분석 첫걸음
시작하기' 수료자 박지선 씨

32 굿&굿 오피스
장애인 근로자에게
'일의 행복'을 선물하다
-행복두드리미(주)

36 인생 2막
끝이라고 생각한 곳이 시작이더군요
-박승욱 씨
대구고등법원 청소업무 공무원

40 청년꿈터
미지의 꿈을 향한 달콤한 도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조수미 씨

44 내일잇수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48 고용노동 뉴스



36

64



68



힐링 일터



64 미디어 속 노동읽기
유미의 세포들 속 일터풍경
함께 살펴볼까요?

68 JOB툰
안녕 2021 · 즐길 수 없다면 피해라

70 고민타파
대전환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4 주말에 뭐 할래?
12월 영화·음반·공연 추천

80 #내일스타그램
월간내일 독자들의 사연

82 애독자 퀴즈

You did a great job

＊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 이맘때면 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합니다.

연초에 결심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

더 열심히 잘 할 걸 하는 후회,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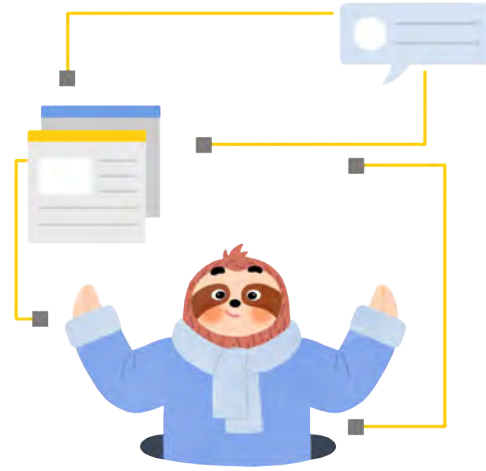
무엇일까 하는 초조함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찾아오고 있나요?

그렇다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수고했어 올 해도”라고 말이죠.



연말은 결산의 시즌입니다. 연초의 계획들을 돌아보고
잘한 것과 못한 것, 개선할 것과 버려야할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곤 하죠. 다이어트, 자격증 취득,
운동하기, 금연하기, 독서하기 등 무수했던 연초의
계획들 중 작심삼일에 그친 것도 있고, 삶에 좋은
습관으로 자리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늘 계획대로 쉽게 흘러가진 않는
법이죠. 특히 코로나19라는 큰 변수는 우리 삶의
계획과 선택지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잃었고, 열심히 꾸리던 사업이 위기를 맞기도 했을 겁니다. 졸업 시즌을 맞은
취업준비생과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이들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다양한 고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올 한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늘어가는 실업률과 씨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노동자가 원하는 일터에서 자리를
찾고 일할 수 있을지 정책적인 노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실업자들에게 디딤돌이 되고자 했고,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해 고용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동시에 위기에 처한 사업주들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도 마련했죠.
202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월간내일에서는 이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열심히 꾸린
살림을 돌아보려 합니다. 올해 우리가 세운 예산 내에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실행되었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다양한 통계와
지난 인터뷰들을 리뷰하며 한 해를 결산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고생한 여러분의 삶을
늘 응원하고 지지하며 2022년도 고용노동부는 함께하겠습니다.



아듀 2021 통계로 돌아보는 고용노동 정책

| 고용노동 정책 🔍



취업자

27,741 천명(+652천명)



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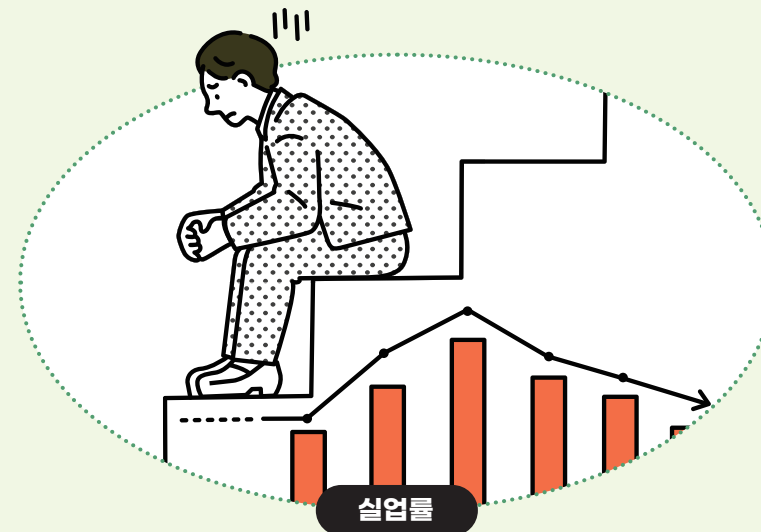
711 천명(-243천명)



고용률

61.4%(+1.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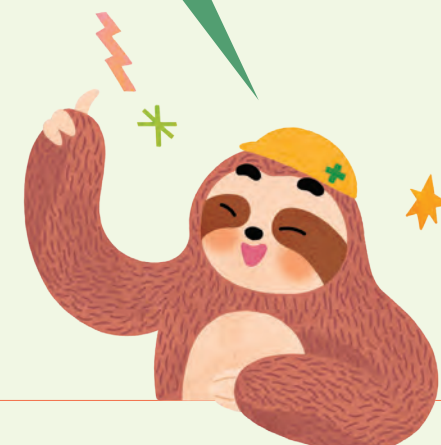
*15~64세 고용률 67.3%(+1.4%p)



실업률

2.8%(-1.0%p)

2021.10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15세이상인구는 45,148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는 28,528천명으로
63.2%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27,741천명으로 전년동월보다
652천명 늘었고, 실업자는
788천명으로 전년동월보다
241천명 줄었습니다!



2021년이 마무리 되는 12월.
지난 한 해 동안 고용노동 통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변화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2020년 10월기준과
2021년 10월 기준 통계를 비교 분석해
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놀bum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경제성장률과 일자리증감

(단위: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 천명)

	'18		'19				20p				21p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경제성장률	2.4 (0.6)	3.1 (0.9)	1.9 (-0.2)	2.3 (1.0)	2.1 (0.4)	2.6 (1.3)	1.5 (-1.3)	-2.6 (-3.2)	-1.0 (2.2)	-1.1 (1.1)	1.9 (1.7)	6.0 (0.8)	4.0 (0.3)
일자리증감	17	88	177	237	366	422	288	-407	-314	-441	-380	618	577

* 자료: 한국은행, 「2019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0년 국민계정(잠정)」, 「2021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는 계절조정계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고용률(증감)

(단위: %, %p, 전년동기대비)

2020년 10월

2021년 10월

60.4(-1.3)	계(증감)	61.4(1.0)
42.3(-2.0)	15~29세(증감)	45.1(2.8)
40.9(-3.1)	20~24세(증감)	44.3(3.4)
67.7(-3.8)	25~29세(증감)	69.8(2.1)
74.5(-1.7)	30~39세(증감)	75.6(1.1)
76.8(-1.7)	40~49세(증감)	77.7(0.9)
74.7(-1.3)	50~59세(증감)	76.1(1.4)
44.2(0.8)	60세 이상(증감)	44.8(0.6)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동향

(단위: 천명, %, 전년동기대비)

2020년 10월

2021년 10월

44,852(251)	15세이상인구(증감)	45,148(296)
28,116	경제활동인구	28,528
27,088(-421)	취업자(증감)	27,741(652)
1,028(164)	실업자(증감)	788(-241)
16,736	비경제활동인구	16,620
62.7	경제활동참가율	63.2
3.7	실업률	2.8
60.4	고용률	61.4
65.9	15~64세	67.3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년도 고용노동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성장률과 일자리증감, 연령별 고용증감률, 기업규모별 취업자 수 통계를 살펴보면 모두 2020년보다 2021년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네요.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고용률과 취업자 수 수치가 점점 회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2022년에도 더욱 긍정적인 수치가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고용노동 정책

세대별로 돌아보기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년, 일하는 부모, 중장년 등 각 세대별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고용노동 정책이 2021년 시행되어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채용특별장려금

GO

대상: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신규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고 있죠. 21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하여 6개월간 고용유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청년내일채움공제

GO

대상: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5인 미만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 허용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이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하도록 돕는 정책으로 만기금은 총 1,200만 원입니다. 청년은 매월 12.5만 원을 납입하고, 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 적립하는 방식이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참여신청 -> 승인 및 선발(운영기관) -> 청약신청 (www.sbcplan.or.kr)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GO

대상: 모든 청년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한 고용서비스 제공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청년정책, 청년공간, 청년상담실, 청년소식 등을 받아볼 수 있으며 395개 중앙·3,296개 지자체 청년정책과 239개 청년공간 정보 종합 제공 중입니다. ('20. 12월 말 기준). 오프라인 청년센터 또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있는데요. 청년정책의 통합안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 문의: 온라인 청년센터(TEL 1811-9876),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www.youthcenter.go.kr),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TEL 044-202-7444, 7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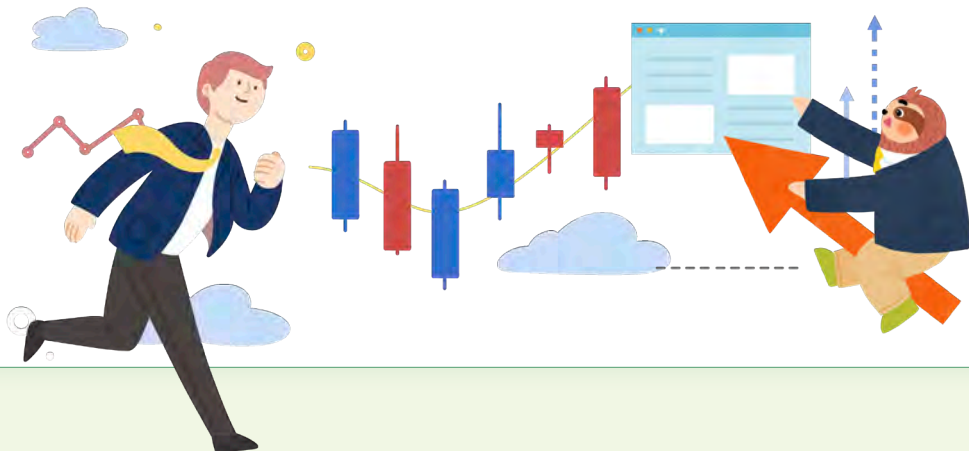
☆ 일학습 병행

GO

대상: 해당 분야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입니다.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죠. 1년 이내 신규 입사자 또는 직업계고·전문대·4년제 대학 재학생 등을 채용하여 일학습병행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하는데요. 코로나19 특별조치로 훈련시작일이 '21.12.31. 기간 내 해당하는 과정에 한해 2년 이내 신규 입사자가 참여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컨설팅 지원, ▲현장(외)훈련 훈련비, ▲훈련장려금, ▲기업현장교사·HRD전담자의 수당 지원 및 양성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TEL.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GO

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및 재직자

* 채용예정자 훈련은 70% 이상, 재직자 훈련은 40% 이상 청년층 참여 의무화

청년층(청년 구직자, 재직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공동훈련센터에 대해 훈련비(실비) 지원과 공동훈련센터에 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TEL.1644-8000),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일하는 부모를 위한 정책



☆ 모성보호 육아 지원

GO

대상: 출산전후의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의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자의 상황별로 각각 아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GO

대상: 출산육아기의 근로자를 둔 사업주

출산육아기의 근로자를 둔 사업주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GO

대상: 대체인력 구인수요 사업장 및 구직자

출산·육아·시간선택제·병가·교육·산재 등을 사유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서 아래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류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80만 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80% (중소·중견기업 월 6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 지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금(2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지원(월 최대 60만 원 한도 내)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대체인력뱅크(수도권 1577-0221, 지방권 1577-8505)
워크넷(<http://www.work.go.kr>), 민간 대체인력뱅크(<http://www.대체인력뱅크.com>)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GO

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등의 비임금근로자, 혹은 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적용제외자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월 50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하여 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일부터 출산후 1년 이내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GO

대상: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주관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158개 새일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발굴 및 연계, 기업체 협력망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TEL. 044-202-747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TEL. 1544-1199)





중장년을 위한 정책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GO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 광업·건설업·운수및창고업·정보통신업·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점·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 그 밖의 업종 100명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20% 초과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① 정년을 연장 또는 ② 폐지하거나 ③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요.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피보험자의 30% 한도)을 2년간 지원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GO

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돕고 취업을 촉진합니다.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하여 체계적 재취업 활동과 적극적인 경력관리를 돕는 생애경력설계를 지원하며 재직자와 구직자 각각의 상황에 맞게 상담 및 취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워크넷 (www.work.go.kr/4060hope)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GO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란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를 뜻하는데요. 정규직이나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최대 1년, 3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2021년 월간내일 인터뷰이들의 말말말

2021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나요?

1월호 인터뷰이 개그맨 김용명부터 11월호 김승택 부원장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를 결산하기 위해서 그동안 출연한 인터뷰이들의 대답을 복기하며,
고용노동부의 테마 이슈도 다시 함께 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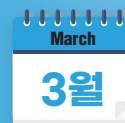


김용명 개그맨 고대한 뉴스 출연자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드시지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듯 우리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대한 뉴스'와 방송들을
통해 많은 구독자와 더 친근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꼭 잘 버티셔서
건강한 일상으로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 월간내일 1월호 다시보기

* 고용노동부 유튜브 속 고대한 뉴스 최근 영상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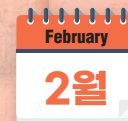


장성규 방송인 워크맨 출연자

저는 사실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다 보니 업무량이 들쭉날쭉한 편이고요. 제가 만약 여전히
직장에 속해 있는 직장인이었다면 '주52시간 근무제'가 참 반가운
제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간 갖지 못했던 업무 외 시간이
물리적으로 확보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코로나19 시국이라는 난제를 잘 해결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 월간내일 3월호 다시보기

* 워크맨 X 고용노동부 클라보 영상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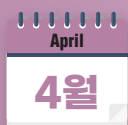
최현정 작가 빨강머리N 일러스트 작가

직장 내에서 쌓이는 불만이나 욕들은 입 밖에 내기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짜증나는 순간에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올라오면 "이거 내 이야기다!" 하면서 피식 웃게 되고,
나만 그런게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고용노동부 인스타그램과 함께 클라보 했던 빨강머리N 작업물을
돌아보면,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콘텐츠는 형식적이고 딱딱할 것
같다는 편견을 깨고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만이 아닌 공감을
유발하는 부분이 신선하게 느껴져서 더 좋아해주셨던 것 같아요.

* 월간내일 2월호 다시보기

* 고용노동부 인스타그램에서 빨강머리N 보기





이득렬 헬스 트레이너 X 김이슬 재즈피아니스트 X 류한승 프리랜서 PD X 신수진 캐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획 인터뷰

이득렬 대표·20년 차 헬스 트레이너_제가 피트니스 업계에 20여 년간 몸담았는데 지난 1년이 최대 위기였어요. 대면이 필수인 업종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죠. 신규 매출은 거의 없었고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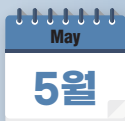
김이슬 재즈피아니스트_대부분의 뮤지션은 음원 수익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고, 공연이나 레슨을 해야 하거든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공연과 레슨이 취소된 상황에서 음원 제작까지 하기란 더욱 어렵고요. 그래서 3차에 걸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앨범 제작과 생활비에 고스란히 사용했어요. 더 많은 분이 이 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지원받으셨으면 해요.

류한승 프리랜서 PD_모든 프리랜서는 작은 크든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원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진 캐디_확진자들이 와서 골프장이 전체적으로 멈출 때도 있었고요.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쳤던 캐디들은 경기를 진행하는 도중에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캐디는 수입이 많은 편이지만, 자가격리 등으로 수입이 급감하는 경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도움이 된다고 느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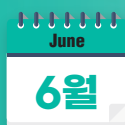
* 월간내일 4월호 다시보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인의 인터뷰 영상 다시보기



임홍택 작가 X 정책기자단 <90년생이 온다> 저자

한 15년 전에는 청년을 삼포세대, N포 세대, 88만원 세대 등으로 불렀는데 저도 괴리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혀 불행하거나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통계의 함정이랄까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더 좋은 세상이 오길 기대하며 90년생도, 80년생도 또 모든 선후배 세대가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만나요!

* 월간내일 5월호 다시보기
* 임홍택 작가와 고용노동부 청년 정책기자단의 비대면 토크쇼 영상 다시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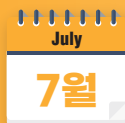


이주영 노무사 X 이승연 노무사 <랜선 노동법> 출연자

이주영 노무사_산업재해는 사후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노무사와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근로자들이 과로하지 않으시고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승연 노무사_노동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일 일터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것이잖아요. 공인노무사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고,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또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 <랜선 노동법>을 통해서 더 많은 노동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월간내일 6월호 다시보기
* 고용노동부 유튜브 속 랜선노동법 최근 영상 보기



배정근 개그맨 X 하신아 웹툰 작가 X 유승원 정수기 점검원 전국민 고용보험 기획인터뷰

배정근 개그맨_예술인 고용보험이 작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그콘서트를 그만두면서 예술인으로서 가입이 어려워졌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배달 라이더나 플랫폼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란 생각이 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같이 힘내서 비상구를 함께 나가시죠!

하신아 웹툰 작가_고용보험은 '꿈의 요람,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해요. 사실 실업자에게 3개월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은 다음 스텝의 꿈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의 생계가 걱정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다를 거잖아요. 아이들을 요람에서 흔들면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고용보험은 실업자들이 다음 스텝을 선택하기까지 꿈의 요람이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유승원 정수기 점검원_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점차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뻐요. 동시에 언젠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말도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개념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잘 보장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 월간내일 7월호 다시보기
*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3인의 食터뷰 영상 다시보기





남현우 배우 X 이아진 배우 웹드라마 <좋.좋.소> 출연자

남현우 배우_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춤춤하게 구직자들을 돕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상세한 진로상담부터
구직활동비용도 주고, 취업 알선도 해주시고,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수당까지
주시더라고요. 코로나19로 많은 분이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분이 제도를 알고 혜택과 지원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좋.좋.소>의 정승네트워크 식구들이 실존한다면 실직 전후로 이 정책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아진 배우_ 저는 취업준비 중인 동생 생각이 났어요. 올해부터 시행됐다고 하셨는데,
오늘 상담한 고용센터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 구직자의 취업을 돕고,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동생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께
받은 팸플릿과 유형별 지원 내용 서류를 챙겼어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월간내일 8월호 다시보기
*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좋.좋.소>
남현우 배우, 이아진 배우의 영상보기



유꽃비 팀장 X 신입사원 3인 워라밸 기획 인터뷰

유꽃비 팀장_ 너무 폰대같이 들리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워라밸을 챙기기 위해서는 결국
업무시간에 일을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시 퇴근도 워라밸도
그래야 의미가 있죠. 소중한 사람들과의 휴식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되고
중요하니까요. 업무도 워라밸도 함께 잘 지켜내봅시다. 파이팅

홍주현 사원_ 일찍 퇴근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업무가
없고 여유로워서 정시 퇴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할 일을 다 했다는 방향으로요.

이송녕 사원_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정부가 개인이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워라밸 정책들이 각
회사들에 잘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휴 사원_ 개인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잘 지켜지는 회사에 다녀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회사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더 많은 회사가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워라밸 정책이 잘 자리잡았으면 좋겠어요.



* 월간내일 9월호 다시보기
* 유꽃비 팀장 X 신입사원 3인의 익명 메신저 인터뷰 영상 다시보기



최예근 가수 X 취업준비생 3인 청년 정책 기획 인터뷰

최예근 가수_ 지구가 멈춰있는 것 같애 애들아. 빨리 달리던 발이 갑자기 멈춰지고, 빠르게
흐르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아. 우리 같이 그래도 같이 달리고 힘내보자. 다시 우리의
시간은 돌아올 거니까!

이선우_ 나도 너처럼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콘텐츠 기획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본가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직무에 해당하는 인턴이나 대외 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누리기가 쉽지 않더라고. 0에서 꾸역꾸역 무언가를 쌓아 나가려 노력하는 중이야.

이고은_ 내가 16학번이거든. 그리고 졸업을 하지 않고 6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스스로 16호라고 숫자를 붙여 봤어. 친구들은 초등학생이냐고 놀리기도 해. 취업준비를
하다 보면 졸업생보다 재학생의 신분이 더 나은 경우가 많더라고. 하지만 이제 진짜
졸업을 해야 할 타이밍이 되어서 두렵기도 해.

황준하_ 정말 빠르게 살긴 했던 것 같아 20개의 영상을 내가 만들고 싶어서 즐겁게 만든
것도 있지만,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드러나는 숫자이기도 한 것 같아.



* 월간내일 10월호 다시보기
* 최예근 가수 X 취업준비생 3인의
인터뷰 영상 다시보기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두려움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변화가 빠르게 크게 오니까 두려운
것이죠. 전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구조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려움이 클수록 기회 또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디지털화라는 요인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주요 산업의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저탄소화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월간내일 11월호 다시보기
*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인터뷰 다시보기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4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 (유급휴시간 포함):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약 209시간



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2년 1월 급여 2,105,000원을 받는 경우

월급 명세서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	130,000원
상여금	125,000원
급여계	2,105,000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 (1,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누서 매월 지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식대·교통비	161,710원
상여금	0원
계	1,811,710원

• 상여금 125,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10%(191,444원) 초과금액

• 식대·교통비 200,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2%(38,288원) 초과금액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1,811,710원 ÷ 약 209시간
≈ 8,668원 < 9,160원

∴ 최저임금 위반



권리를 주거나 받을 때에는
최저임금 반드시 확인!!

“2021. 11. 19.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Hopeful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 28 데이터 리터러시, 누구나 기를 수 있어요!
- 32 장애인 근로자에게 '일의 행복'을 선물하다
- 36 끝이라고 생각한 곳이 시작이더군요
- 40 미지의 꿈을 향한 달콤한 도전
- 44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 48 고용노동 뉴스





데이터 리터러시, 누구나 기를 수 있어요!

K-디지털 크레딧 '빅데이터 분석 첫걸음 시작하기'
수료자 박지선 씨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수치화되고 있는 ‘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를 수집·정리·분석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데이터 문해력)’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문과 출신 마케터 박지선 씨도 그 중요성을 깨닫고 역량 키우기에 나섰는데요. ‘천생 문과생이 할 수 있을까?’ 싶던 그때 만난 K-디지털 크레딧은 그에게 데이터 분석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 줬습니다.

데이터 세계에 첫 발을 내딛다

국문학,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뒤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던 박지선 씨는 보다 역동적이면서도 세상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고심 끝에 올해 초 한 비영리단체의 마케터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소속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후원자를 모집하는 마케팅 활동을 하다 보니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다면 한층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사실 비영리단체는 재정적 여력이 일반 기업에 비해 탄탄하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더욱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코로나19 이후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 화두로 자리 잡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흐름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었죠. 이런 와중에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진행되는 마케팅 직무 교육을 들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수업을 들으며, 당장 직무에 적용할 수는 없어도 데이터 분석에 관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사실 비영리단체는 재정적 여력이 일반 기업에 비해 탄탄하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더욱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코로나19 이후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 화두로 자리 잡은 ‘디지털 전환’ 흐름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와 데이터 분석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던 만큼 아무 교육이나 수강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신중하게 관련 교육 정보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마케팅 관련 교육을 몇 차례 받았던 교육기관 패스트캠퍼스에서 K-디지털 크레딧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과, 그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 첫걸음 시작하기’ 과목을 신설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탄탄한 강사진과 촘촘한 커리큘럼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100%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어 직장생활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지선 씨는 용기를 내어 수강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가 K-디지털 크레딧과 인연을 맺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K-디지털 크레딧으로 경험한 데이터 분석의 전 주기

지난 8월 박지선 씨가 총 5주, 34시간에 걸쳐 수강한 ‘빅데이터 분석 첫걸음 시작하기’는 데이터 분석에 관한 개요 및 이론, 파이썬 프로그래밍,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실습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관한 기초 지식과 실습을 하나부터 열까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알찬 구성이었지만, 관련 지식과 경험이 전무 했던 박지선 씨에게는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표 격인 파이썬이 그를 힘들게 했죠.

“데이터를 원하는 방향으로 분석하고 보기 좋게 시각화하려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반드시 배워야 했어요. 파이썬에 대한 기본 개념 정도만 알고 있었던 저에게는 벽찬 시간이었는데요. 그럴수록 이론 공부와 실습, 개인적인 보충 공부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려웠던 만큼 성과도 있었어요. 파이썬에 대한 기초적 역량을 갖추 수 있었고, 나아가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하는 자신감을 얻었죠. 이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파이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파이썬을 활용해 직접 데이터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쌓은 경험도 박지선 씨를 한층 성장하게 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실행에 옮겨 봤습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공개하는 유용한 공공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과제를 진행하다가 막히는 부분은 전담 스터디 코치를 통해 해결했고, 교육자료와 함께 제공된 데이터 분석 관련 기사를 통해 이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분석적인 미래’를 그리다

이제 막 데이터 분석을 맞본 만큼, K-디지털 크레딧을 통해 배운 내용을 곧바로 현업에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선 씨는 그 이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강조합니다. 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리터러시의 기본 소양을 확보했고, 데이터 분석가들이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대해 배

움으로써 앞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게 됐죠. ‘데이터 분석 초보’ 이후의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밑바탕을 탄탄하게 마련한 것입니다.

“요즘 더 큰 비영리단체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곳의 마케터 채용 요건에도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쓰여 있어요. 데이터 분석이 모든 분야의 필수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 주관하는 K-디지털 크레딧을 통해 데이터 분석 기초 강좌를 무사히 수료했으니, 이 부분에서 충분히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수료 이력의 비고란에도 ‘고용노동부 주관’이라고 써 놔드립니다(웃음).”

5주간의 시간을 치열하게 보낸 박지선 씨는 이후에도 데이터 분석에 관한 강좌를 여럿 수료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그는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역량을 꾸준히 길러 나갈 계획입니다.

“패스트캠퍼스의 ‘빅데이터 분석 첫걸음 시작하기’를 무사히 수료하면 언제든 온라인 강의를 복습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른 뒤 다시 강의를 들으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중요한 내용이 재조명되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을 배우고 싶지만 어려울 것 같아 지레 포기하고 있는 ‘천생 문과생’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K-디지털 크레딧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늘봄이's Advice K-디지털 크레딧과 ‘빅데이터 분석 첫걸음 시작하기’ 교육 과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K-디지털 크레딧이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분야 일자리 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실무인재 양성사업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발급 가능한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하고 훈련 과정에 소요되는 교육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 전액 무료로 제공하며, 100%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K-디지털 크레딧 사업 수행기관 패스트캠퍼스의 ‘빅데이터 분석 첫걸음 시작하기’

교육 개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이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습을 모두 경험함으로써 초급 수준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확보·강화하는 데이터 분석 기초 교육 과정입니다.

신청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비용

본인부담금 30,000원(교육비의 10%)

*수료 시 본인부담금 100% 환급

신청 및 문의

패스트캠퍼스 홈페이지: www.fastcampus.co.kr

문의전화: 02-518-4831



장애인 근로자에게 ‘일의 행복’을 선물하다

행복두드리미(주)

좋은 일터에는 행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소속감, 성취감, 만족감, 성장, 행복, 희망
등이 녹아 있기 때문인데요. 행복두드리미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이 모든 긍정적 감정을
두루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장애인 근로자들의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모회사의 복지시설을 책임지다

행복두드리미는 중증장애인을 채용해 자립을 지원하
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3년에 설
립된 효성TX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입니다. 93명
의 소속 임직원 중 80명이 장애인 근로자이며, 그중
70여 명이 중증장애인입니다.

저마다 지적·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행복두드리
미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무는 막중합니
다. 효성TX의 주요 사내 복지시설을 책임지고 있죠.
직원들이 가볍게 업무 이야기를 나누거나 휴식을 취
하는 사내 카페 6개소를 맡고 있으며, 그 안에서 소비
되는 빵과 쿠키를 만듭니다.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내 매점 4곳과 네일아트점 2곳, 우편·서류 파쇄 및
제본·사무용품 분배 등을 담당하는 업무지원실도 운
영합니다. 임직원들의 피로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 예
방에 도움을 주는 안마 헬스키퍼도 배치하고 있습니
다.

“행복두드리미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자체,
발달, 시각, 청각 등 다양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저
희는 이러한 점과 장애별로 해낼 수 있는 일의 종류를
바탕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체장애인은 커피를 내리고 발달 장애인은 카페 미화 활동을 맡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안마 서비스, 청각장애인은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하죠.”

각 지점의 비장애인 관리자들은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등 장애인 직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을 발휘합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 적응 현황과 일터에서 원하는 바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매일 전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담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덕분에 행복두드림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일하는 행복을 마음껏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빛을 발한 채용 확대

행복두드림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근로자들을 더욱 많이 고용하기 위해 새로운 직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과제빵과 업무지원 분야도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개발한 새로운 사업 분야인데요. 행복두드림은 이를 바탕으로 4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리어 채용을 확대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한데요. 경영지원본부 박서는 본부장이

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갔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 상당수가 직장을 잃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서 이렇게 힘들 때야말로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죠. 남경환 대표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셨고, 나아가 기존 40여 명이었던 장애인 근로자를 두 배인 80명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모회사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채용 규모를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행복두드림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100% 정규직입니다. 모두 최저 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장애 정도와 업무 숙련도에 따라 근무 시간을 4~8시간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임직원이 누리는 복지제도를 장애인 근로자들도 온전히 누립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을 꾸준히 진행하고, 근로자가 직무 전환을 요청할 때는 훈련 기간을 거쳐 다른 직무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가운데 지점 관리자도 채용합니다. 현재 카페 6개소 중 2곳의 관리자가 장애인 근로자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경험의 폭을 넓히는 한편 일과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 다가서다

행복두드림은 정서적 측면의 복지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만 들기는 물론, 장애인 근로자 가족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채용 결정 시 부모님께 대표명의로 편지와 소정의 선물을 보냅니다. 올해 가정의 달에는 방역 마스크와 풍성한 간식거리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장애인 근로자들의 애사심은 커졌고, 가정 내 장애인 근로자의 존재감도 커졌다는 것이

박서는 본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껏 장애인 근로자는 독립된 경제적 주체로서 인정받기보다는 ‘돌봐야 될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직장의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가족들과의 교류를 늘리려는 저희의 노력이 장애인 근로자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장애인 근로자들의 애사심과 일에 대한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합니다. 이 직물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죠.”

한편 행복두드림은 설립 전부터 모회사 임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곳에 격려와 응원을 부탁하는 포스터를 부착했고, ‘양방향 대화형 POS’와 같은 보조공학기기도 발 빠르게 설치했는데요. 비장애인 직원들의 세심함과 꼼꼼함이 있었기에 모회사 임직원과 장애인 근로자 모두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두드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 개발과 채용 확대를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예정입니다. 듣기만 해도 행복한 이들의 계획이 모두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행복두드림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비결

- 전 장애인 근로자 100% 정규직 채용
- 코로나19 시기에 장애인 근로자 43% 충원
- 모회사 임직원과 동일한 복지제도
-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전환배치제도 운영
- 관리자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열린 조직문화를 만든 꾸준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끝이라고 생각한 곳이 시작이더군요

박승욱 씨
대구고등법원 청소업무 공무원직

대구 시내 한가운데에는 검찰과 대구고등법원 등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든든하게 세워진 법원의 외관은 누군가의 손길로 세심하게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손길은 바로 박승욱 씨였습니다. 박승욱 씨는 57세의 나이에 이곳 대구고등법원에 청소분야 공무원직으로 새롭게 취직했습니다. 매일 아침 대구고등법원을 말끔하게 청소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는 새롭게 시작된 자신의 일상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간 일자리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사람들의 건강만 앓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많은 사람이 일 자리를 잃었고, 이로 인해 안전한 삶의 기반도 빼앗겼죠. 박승욱 씨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식자재마트에서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일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영업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자 그 여파가 자연스럽게 박승욱 씨가 일하는 곳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곳에서 약 4년 정도 일했어요. 주 고객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보니 코로나19로 식당이 영향을 받으면서 제가 일하던 마트도 힘들어졌어요. 매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2020년 10월에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순으로 일을 그만둬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자진해서 회사를 나왔죠. 그곳에 더 있어봤자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일자리를 잃고 나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에 매일을 술로 보냈던 것 같아요.”

일자리를 잃은 후, 박승욱 씨는 뭐라도 해보자 싶어 동종업계 취직부터 창업까지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업은 매출감소가 이어져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채용을 하는 곳을 만나도 나이 때문에 거절되는 일이 다반사였죠.

“계속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 공사현장 막노동 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일도 얼마 못했죠. 체력적으로 힘든 걸 떠나서 제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다른 업계도 문을 두드려봤지만 결국 나이에 제한이 걸렸어요. 그러다 창업까지 생각하게 됐죠. 입주청소를 하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평소에 깔끔한 걸 좋아해서 청소하는 일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창업 전에 일을 좀 배워보자 싶어서 아파트 입주청소 공고가 나면 지원해봤는데, 이 역시 나이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겠냐면서요. 쓴웃음만 나왔죠. 저는 식자재마트에서 일하며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인데 말이죠. 그 후로도 마스크 공장, 택배 기사, 공사현장 등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모든 곳을 노크했지만 한 군데에서도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도 안되는구나 싶어 마지막 희망으로 고용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고용센터에서 만난 은인

“일자리를 잃고 3개월을 집에 있다 보니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3개월이 3년처럼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일하지 않는 남편, 일자리 없는 아빠로 존재하는 게 용납이 안 됐죠.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도 빨래며 설거지며,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일하고 집에 온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면서 더 힘들어하고 악순환이었죠. 밖에 나가기 싫으니 술만 마시게 되고요. 사람이 한 번 의지를 잃으니 점점 나태해지면서 생각을 더 못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뭐라도 해보자 싶어 고용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한 번 방문이나 해보자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고용센터를 찾은 박승욱 씨는 방문 첫날 받은 면담에서 형식적인 조언 이상의 실질적인 질문과 도움에 마음이 활짝 열렸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자마자 1:1로 면담을 시작하더라고요. ‘이것 봐라? 예전의 고용센터가 아닌데?’ 싶었어요. 꽤 신뢰가 가더라고요. 어떻게 고용노동부에 오게 됐는지, 어떻게 일자리를 잃었는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 등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김명화 컨설턴트가 저를 담당해 주셨는데, 지금도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예요. 그분이 제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나이 때문에 재취업이 막혔던 이야기, 일자리를 잃고 막막했던 이야기 등 다 털어놓았어요. 컨설턴트 분께서 제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더니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입주청소가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 말을 들으시더니 ‘고등법원에 일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서류 넣어보지 않으실래요?’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평소에도 청소를 좋아하는데 그 일로 취직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류를 내기도 전에 한 가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딱 2명만

뽑는 공고였기 때문이죠. 2명을 뽑지만 공고를 조회한 횟수는 수 천회. 이 경쟁률을 뚫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박승욱 씨는 한 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시작한 인생 2막, 안정적 일자리가 주는 행복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그 여정에는 김명화 컨설턴트가 함께했습니다. 서류 작성 방법을 배우고, 작성한 서류를 검토해주는 등 박승욱 씨 혼자였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을 함께해 주었습니다.

“서류에 쓸 게 많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길, 어떻게 일할 것인지 등등 진지하게 생각하고 적어야 할 것들이 가득했어요. 고민해서 쪽 적어 내려갔죠. 하지만 이대로 서류를 접수하기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컨설턴트 분이 제가 쓴 서류를 검토해주셨어요. 덕분에 안심하는 마음으로 서류를 내고 1차에

합격했어요. 면접이 잡혔죠. 그런데 제가 면접을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센터에서는 면접교육까지 연결해 주셨어요. 연결해주신 센터에서 아주 상세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실전에서도 떨리지 않더라고요.”

결국 박승욱 씨는 고등법원 청소분야 공무원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게다가 정규직으로의 취직이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날, 너무 떨려 직접 확인하지도 못하고 막내딸을 통해 확인했다는 박승욱 씨는 합격 소식을 들은 후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의 마음고생이 한순간에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제 됐다,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아침 6시 반에 출근해 법원 외관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후에는 조정 업무를 해요. 제 손으로 깨끗하게 정돈한 법원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새벽 속에 고요하게 청소하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새벽 속에 고요하게 청소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음이 다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직장 생활에 너무나 만족합니다. 진작 이곳에 왔다면 더 좋았을걸, 싶을 정도예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음이 다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직장 생활에 너무나 만족합니다. 진작 이곳에 왔다면 더 좋았을걸, 싶을 정도예요. 퇴근이 이르기 때문에 가족들과 매일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더 감사해요. 지금은 제가 퇴근길에 저녁거리를 장 봐서 들어갑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장보기도 다 제가 해요(웃음). 저녁과 주말에 여유가 생기면서 제 인생 57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주말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죠. 덕분에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좋아해요.”

앞으로 정년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몸을 더 든든하게 단련할 것이라는 박승욱 씨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정년을 채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코로나19의 여파로 은퇴하게 된 많은 사람에게 ‘좌절하지 말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시기도 한순간이니, 세상이 무너진 듯 좌절하지는 말자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저도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지나가더라고요. 무조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니 너무 무너지지 마세요. 마음을 잘 다잡으시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에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현재에 실망하지 말고 앞날을 향해 나아가세요.”

한 번도 정규직 직원으로 일해본 적이 없다는 박승욱 씨는 요즘처럼 마음에 안정을 찾은 날이 언제였던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있었기에 근심과 눈물을 거두고 행복과 미소를 찾을 수 있었다는 박승욱 씨는 매일 아침 6시 반, 청소로 여는 새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조수미 씨

미지의 꿈을 향한 달콤한 도전



누구에게나 ‘도전’은 설레는 동시에 두려운 한 단어입니다.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설레지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운 것도 사실이죠. 조수미 씨도 그랬습니다. 유치원 교사에서
아이들과 안정적인 한 때를 보내던 때에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했죠. 그 질문 끝에
결국 새로운 배움에 도전한 수미 씨는 결과가 어떻든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발견한 달콤한 꿈

10년 전 대학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고 유아교육을 복수전공으로, 조소를 부전공으로 삼은 조수미 씨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손재주가 많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손으로 만드는 일을 즐겨워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행복해 했기에 수미 씨가 유치원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참 높았어요. 아이들을 보살피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 마치 선물같이 느껴졌거든요.”

실내 수업보다는 야외 수업을 더 선호했던 수미 씨는 평소 아이들과 종종 유치원 앞에 있는 작은 숲에 나가 자연을 만나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미술교육과 유아교육을 전공한 만큼 아이들과 숲에 나가 다양한 자연물을 이미지화 하는 활동을 즐겼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늘은 뭘 만들어볼까?’ 라는 수미 씨의 질문에 한 아이가 ‘꽃 케이크를 만들어봐요!’ 라고 대답한 것이 수미 씨 마음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숲에 떨어진 낙엽과 열매, 꽃을 이용해 흙 위에 케이크 모양으로 데코레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꽃 케이크’를 저에게 보여주는데 정말 예쁜 거예요. 그걸 보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 진짜 꽃 케이크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게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그러게. 나도 정말 꽃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올랐죠.”

플라워케이크,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본래 손으로 만드는 일은 무엇이든 좋아했기에 수미 씨는 곧장 플라워케이크를 만드는 공예학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당시에는 플라워케이크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에 이를 알려줄 학원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학원을 검색한 결과 수미 씨는 자신에게 맞는 학원을 찾을 수 있었고 정규과정과 심화과정을 모두 수료할 정도로 열심을 다해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다 듣고 나니 저만의 플라워케이크를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투 잡을 가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한 동안 재능기부 형식으로 플라워케이크를 만들고 나눠주는 일들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유치원 교사와 플라워 케이크 제작을 병행한 지 약 4년이 지났을 즈음, 수미 씨는 본격적으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2월에 유치원 교사를 마무리하고 한두 달 정도 여행을 다녀온 뒤 본격적으로 제과제빵 공부를 위한 루트를 알아봤어요. 어떤 기관이 저에게 잘 맞는지 알기 위해 인터넷으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죠. 그렇게 무작정 고용지원센터에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내일배움카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사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게 됐어요.”

상담을 받은 결과 수미 씨는 한국외식조리학교의 ‘취업패키지프로그램 II’를 수강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곧장 조리학교에 등록했습니다.



달콤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준, 국민내일배움카드

제과제빵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울 수 있던 5개월의 시간은 수미 씨에게 매우 필요하고, 그렇기에 소중한 날들이었습니다. 재료의 배합표가 얼마나 중요한 지 스스로 되새겼고 이곳에서 배운 것을 응용해 자신만의 배합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과제빵을 배우기 위해 모인 수강생들의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것은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서 열심히 빵을 만들고 계신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때 당시 제 나이가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을 보면서 도전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과정 이수 후, 자신만의 작은 공방을 만들어 케이크를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1년 동안 이어간 조수미 씨. 1년의 시간 동안 수미 씨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많은 고객과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워케이크 강사로도 활동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제과제빵을 배우고 스스로 창업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저에게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 제안의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앞으로 무엇이든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이라는 단어가 한편으로는 막연하고 두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기회에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 지면을 통해 제게 제과제빵을 알려주신 윤영국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용기 내어 창업을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얻은 좋은 에너지를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현재 수미 씨는 공방을 접고 다시 유치원 교사로 돌아왔습니다. 공방을 운영하던 1년 동안 많은 손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덕에 행복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혼자 모든 주문을 감당하는 게 어려웠기에 스스로에게 잠시 쉬는 시간을 내준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을 건강히 만들어 머지않은 시간에 다시 창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제 삶에서 직업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양한 일을 넘나들 수 있다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국민내일배움카드가 큰 도움을 줬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저에게 ‘엄빠 카드’나 다름없어요.(웃음)”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응원과 함께 앞으로 더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수미 씨는 자신이 배운 것을 유치원에서 함께하는 아이들과 더 재미있게 나눌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업자's 꿀팁>

창업을 앞두고 계시다면 무엇보다 자신이 창업하려는 분야의 기본 지식을 탄탄하게 쌓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고객들에게 더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본금은 여유롭게 마련하세요. 저는 빠듯하게 창업 했는데 그 래서인지 여유가 없어서 심적으로 어려움이 오기도 했어요. 혼자 창업하고 운영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직원을 고용할 것인지 등 계획을 잘 세운 후 창업하실 것을 권합니다.

친구가 들려준 해외취업 꿀팁



더 많은 정책기자단의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를
통해 확인하세요!



“
해외 취업
어떻게 한 거야?
코로나19로
시끌시끌한데 괜찮아?
”



인터뷰

황규형 (HYUNDAI MOBIS India)

평소 이런 질문을 받아왔던 친구가
이번 인터뷰를 통해 모든 것을
대답해준다고 하네요. 해외취업
희망자 주목! 해외취업의 준비과정과
면접, 각종 구비서류와 고용노동부
정책인 '해외취업정착금'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연일 취업이 어렵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들려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제 절친한 친구 한 명이 ‘해외취업’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저도 궁금해 정보를 찾아보니 국내 취업과
달리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실제 합격자가
아니라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취업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현대모비스 인디아 법
인에 취업해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Q. 졸업 전부터 취업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우선 바로 정규직이 되지 않더라도, 경력을 쌓으며 능동적으로 생활
하러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약직 기회에 도
전했고, 합격하며 회사라는 시스템과 업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잘 배울 수 없었던 조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높였습니
다. 또, 학점과 어학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Engineering 업무에 익
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Q. 전공(사회복지)과 다른 분야로 계약직에 들어가 친구들끼리
는 놀랐다고 하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다양한 대외활동과 봉
사활동 경험을 통해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취업 직장 고려 1순위로 생각했습니다.

Q. 해외 취업 서류 준비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예전부터 해외에 정착해 살아보고 싶다는 꿈으로 서류 준비를 시작
했습니다. 3번의 해외 봉사과 방학 기간 중 해외여행 경험을 살렸고,
현대자동차 글로벌 봉사단 인도 첸나이 지역 활동 경험을 잘 정리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Q. 공고 같은 게 모여져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취업할 때, 흔히 보는 여러 사이트에 공고가 함께 올라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화상으로 면접을 본다는 것 정도입니다. 실제로 공고문
조회 수에 대비했을 때는 지원자 수가 많이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Q. 아,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공인영
어 성적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른 지원자 대비 되려 영어 실력은 많이 떨어
졌습니다.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나 태도, 인성으로 극복할 수 있
다고 생각했습니다.

Q. 채용과정 전반을 알려주세요.

서류 접수 후 4단계로 채용이 진행되었습니다. 전화 인터뷰로 직무
와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특히, 계약직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잘 살렸습니다. 이후 1차 면접과
2차 면접, 최종 합격으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영어성적과 학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직 경험
과 각종 봉사단 활동, 그리고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특히 강조
했고 영어 자기소개를 반복해 연습했습니다. 또, 해외취업에서 기업
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에서 펼쳐지는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맞춰 가족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상
황과 해외 봉사 경험, 타지에서 생활한 경험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졸업학점을 상쇄하기 위해 극복했던 방법과 성적향상장학금을 받았
던 일화도 강조했습니다.

**Q.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합격 후 서류도 복잡했다고 하
던데요?**

최종 합격 통지 이후 서류 검증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Application
Form과 이력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특히 도움을 받았던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월드잡플러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해외취업, 해외진출정보, 해외채용공고,
K-Move스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
www.worldjob.or.kr

해당 사이트에서 영문이력서를 출력할 수 있었고, 이 외에도 정착 지원금같
이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력 추천하는 사이트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외취업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점이 낮아도, 영어
를 못해도 열심히 적응하겠다는 의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들 도전해보세요!

지원내용	선진국 취업자 400만 원 신흥국 취업자 600만 원
자격요건	취업비자 소지자, 연봉 16000만 원 이상 등 <i>*그 외 조건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문 참고</i>
신청기간	1차- 취업 후 1개월~8개월까지 2차- 취업 후 6개월~8개월까지 3차- 취업 후 12개월~14개월까지

이렇게 친구는 인터뷰를 마치고
9월 30일, 인도로 떠났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공공기관과 여러 공단,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OEL News

1

외국인근로자 근로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인 지난 11월 1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주)중일을 방문하여 해당 사업장 및 기숙사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의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하고, 입국 전(탐승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 허용, 입국 후 14일 시설격리 등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 특별방역점검,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근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시 방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만 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20~'21년 고용허가서 발급 후 국내 입국하지 못하고 송출국에서 대기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약 50천명('21. 10월 말 기준)에 달합니다.

안경덕 장관이 방문한 (주)중일에서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작년 2월에 외국인근로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으나, 송출국의 방역상황 악화,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1년 8개월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임을 호소하며,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제한되었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조치 하에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도 조만간 입국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예방접종 및 사업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밀기계 가공 분야 전문가 곽상원 대표((주)드림메카텍) 등 3명을 올해 7~9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11월 2일 세종청사에서 시상식을 열어 고용노동부장관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숙련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1년 9월 말 기준 175명 선정)하고 있습니다.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이 대상입니다.

7월「이달의 기능한국인」(주)드림메카텍 곽상원 대표는 아주 작은 바늘 크기의 제품부터 집채만 한 챔버(Chamber;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간)까지 정밀가공할 수 있는 20년 경력의 정밀기계가공 숙련기술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기술력을 쌓다 다니던 회사에서 기계 한 대를 빌려 2007년 1인 기업으로 정밀기계가공업체를 창업한 곽 대표는 10년 만인 2018년, 매출 240억 원을 달성하는 탄실한 기업으로 일궈냈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과정 중 박막공정에 사용되는 가스분사기의 수십만 개 미세구멍을 신속하고 균일하게 가공하는 기술이 곽대표의 핵심기술입니다. 황삭(거친 절삭)과 정삭(마무리 절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구를 개발해, 구멍의 조도(粗度)를 향상시키면서도 가공속도는 1.5배 증가시켜 제품 사용처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역의 과감한 확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곽 대표는



“기능한국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직원들은 물론, 직업계고 학생 등 후배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8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대산지오텍(주) 이종량 대표는 정밀기계 가공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자로,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첨단제품 제조장비의 부품을 개발하는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실력을 다져온 이 대표는 2010년 창업 이래 꾸준히 회사를 키워왔고, 지금은 7,192㎡의 부지에 공장 과 연구소를 설립해 설계에서부터 소재, 가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술연구소 설립 이후 공정개선용 JIG(부품가공 보조기구) 등 기술을 개발해 5건의 특허를 보유 중입니다. 또 2016년부터는 수출을 시작해 2017년 경기도 수출프론티어 IT분야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설비 중 CF노광기의 핵심이 되는 초정밀 기초부품 가공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 10여 년 전부터 국내 대기업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모교 졸업생 3~5명을 채용하고 장학금 지급과 기부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 이 대표는 “공장도, 기계도 없이 기술력만 갖고 창업했지만, 주변의 도움 덕분에 기능한국인의 영광까지 얻었다”라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정진해, 숙련기술자의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기업인이 되겠다”라고 기능한국인 선정 소회를 밝혔습니다.

9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신한전자기기 오철규 대표는 국내 최초로 크레인의 과부하 안전장치를 개발해 상용화시킨 숙련기술자이자 안전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의 웬만한 대형 크레인에는 오 대표가 개발한 과부하 안전장치가 탑재돼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 대표가 개발한 크레인 과부하 안전장치는 당시 국내 대부분의 크레인에 설치된 외국산 안전장치보다 가격은 1/3 수준으로 저렴했고, 성능은 더 뛰어났습니다. 육상용 크레인 안전장치에 이어 해상용 크레인 과부하 안전장치도 개발해 세월호를 직립시킬 때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크레인 및 화물용 승강기 안전장치 분야에 26건의 특허를 보유 중입니다. 안전장치 외에 개발한 레이저 균형측정기는 2004년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육상에서 배를 건조해 바다로 진수할 때 바지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 대표는 “빨리빨리 문화에 안전은 뒷전이었던 시절, 크레인 사고가 빈번해 안전장치를 고안하게 됐다”라며 “크레인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마트한 안전시스템을 개발해 크레인 사고를 대폭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기능한국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그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기술을 갈고 닦아 우뚝 선 장인들”이라면서, “이분들의 경험과 비결은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자 기능기술인을 꿈꾸는 미래세대에게는 훌륭한 본보기인 만큼, 앞으로도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민관 협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청년들을 위한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을 1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은 기존 체험형·인턴형 외에 기초 직무교육과 각 기업별 심화교육·현장실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참여자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복합형 사업으로서,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요건에 맞춰 선발하고, ② 선발된 인원은 2주 내외의 기초직무 교육을 이수한 후, ③ 기업별로 마련한 4~8주 내외의 심화교육이나 현장실습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기업별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SK하이닉스: SK그룹 및 반도체공정 이해(29명)

SK하이닉스는 4주간 SK그룹의 이해, 반도체 공정 및 지능형 공장 등을 주제로 심화교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특히 참여자들에게 반도체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SK하이닉스의 현직 전문 강사진이 직접 가르치는 수준 높은 온라인 직무교육을 진행하며, 이와 함께 SK 사내문화에 대한 소개와 기술 명장의 특강, 반도체 및 시장 이해, 지능형 공장과 자동화 이해 등 반도체 및 제조업 분야 취업준비생들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지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❷ LG전자: LG전자 및 제조업의 전반적 이해(38명)

LG전자는 5주간 LG전자 및 제조업의 전반적 흐름(마케팅, 구매, 자재,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을 위한 심화교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위 과정은 LG전자 신입사원들을 위한 내부교육과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성하여, 참여자들에게 제조업의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기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기술융합,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대한 교육 및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 성과관리 등 참여자들이 취업 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집니다.

❸ 롯데호텔: 호텔서비스 및 소믈리에·바리스타 자격증 과정(19명)

롯데호텔은 8주간 롯데그룹 소개와 함께 ‘LOTTE Hotel Signature Service’ 교육을 진행하며, 참여자들은 호텔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교육을 체험합니다. 특히 호텔 서비스의 전문 사내 강사진이 직접 가르치는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서비스 교육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실제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생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믈리에, 바리스타 등 호텔업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바리스타의



경우 우수자에 한해 별도의 민간 자격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❹ 스타벅스: 바리스타 커피 일경험(40명)

스타벅스는 2주간에 걸쳐 아카데미 현장실습과 함께 실제 매장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해보는 과정을 2회 운영합니다. 스타벅스 기업 소개와 함께 스타벅스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훈련시설을 일경험 참여자에게도 개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며, 특화 매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다양한 커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훈련연계형 참여자에게는 해당 일경험을 토대로 기업에서 부여한 추가 과업을 이행토록 함으로써,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이 단순한 일경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에게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직무경험과 역량을 요구하는 채용 경향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훈련연계형 사업은 주요 대기업과 힘을 모아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

- ☞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 및 일부만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7일→ 최대 4주)
② 다만,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 시행으로 반복수급 행태 개선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 대상 보험료 추가 부과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왜곡된 단기일자리 계약 관행 등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① 1)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2)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40% 이내)
② 또한, 사업주가 불합리하게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기의 사정(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등) 등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수치 산정시 제외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6년 보험료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피보험자격자가 이직하여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현행 구직급여 수급 요건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맨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이직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업 신고 가능(현재는 반드시 출석하여 신고)
- ☞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운 사람이 단기 일자리에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고자,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예술인·노무제공자는 3개월)인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합니다.
- ☞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편**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 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과 ▲근로일수 요건(10일 미만 → 총 일수의 1/3 미만)을 개편합니다.

<2> 고용보험 적용 관련 제도개선

-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예: 영유아 모델)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15세’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으로 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 ☞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 한정합니다.
-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병행시 예술인·노무제공자로는 고용보험 적용)

5
플랫폼 종사자 근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상세 결과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9호)」에서 확인(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www.keis.or.kr→연구성과→연구성과물→정기간행물)

[1]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 및 유형

(규모)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취업자(15~69세)의 2.6%에 해당합니다.

(성별·연령) 종사자 중 여성(46.5%)이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 높고, 청년(20대와 30대) 비율(55.2%) 역시 전체 취업자 중 청년(34.7%)보다 높고, 수도권 거주 비율(59.8%)도 전체(52.3%)보다 높습니다.

(직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이 약 30%를 차지하며, 음식조리·접객·판매(23.7%),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순으로 많았습니다.

남성은 배달·배송·운전, 여성은 음식조리·접객·판매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남성(%)		여성(%)	
배달·배송·운전	29.9	배달·배송·운전	47.5	음식조리·접객·판매·수리	33.1
음식조리·접객·판매·수리	23.7	음식조리·접객·판매·수리	15.5	전문서비스	14.5
전문서비스	9.9	사무보조·경비	8.5	가사·청소·돌봄	10.1
사무보조·경비	8.6	전문서비스	6.0	배달·배송·운전	9.8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5.7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3.5	사무보조·경비	8.6

[2] 협의의 종사자(66만 명) 근무실태

(주·부업) 협의의 종사자 중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고, 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습니다.

- * ▲주업형: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 or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
- ▲부업형: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50% or 주당 10~20시간 노동
- ▲간헐적 참가형: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 미만 or 주당 10시간 미만 노동

배달·배송·운전 업무는 주업형의 82%를 차지하고, 부업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69%, 76%를 차지합니다. 전문서비스 업무는 부업 비율이 높고,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업무는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		남성(%)		여성(%)	
배달·배송·운전	82.3	배달·배송·운전	68.5	배달·배송·운전	75.9
가사·청소·돌봄	4.6	전문서비스	14.5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8.5
전문서비스	3.3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5.9	전문서비스	6.2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2.8	가사·청소·돌봄	5.3	창작활동	5.2
IT 관련 서비스	5.2	IT 관련 서비스	1.2	IT 관련 서비스	2.9

(근무현황) 유형별로 근무일,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고, 주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21.9일 근무하며 192.3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주업	부업	간헐적 참가형
月 근무일(일)	21.9	10.3	5.4
日 근무시간(시간)	8.9	4.5	3.1
月 소득수준(만원)	192.3	74.3	22.7

[3] 플랫폼 기업과의 관계(협의의 종사자 66만 명 기준)

(플랫폼과의 계약 형태)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28.5%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이며,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의 업무 규정)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59%이고, 있다는 응답은 41%였습니다.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해지(59%) 등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업무 중 어려움) 종사자는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업체(Agency)의 보수 미지급(2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중재·조정을 했는지는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기업의 청년 채용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4부터 9월 17일까지 채용 결정요인 등 취업준비생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8일 발표된 「취업준비생 애로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여 취준생이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취업준비생이 성공적인 취업 준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대학일자 리센터 등에서 취업·진로 상담 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입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입사지원서에서는 전공의 직무관련성(47.3%)이었고, 면접에서도 직무관련 경험(37.9%)으로 나타나 직무와의 관련 성이 채용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사지원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는 ‘전공의 직무 관련성’ 47.3%, ‘직무 관련 근무 경험’ 16.2%, ‘최종 학력’ 1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면접에서 중요한 요소는 ‘직무 관련 경험*’ 37.9%, ‘인성·예의 등 기본적 태도’ 23.7%, ‘업무에 대한 이해도’ 2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직무 관련 경험은 향후 수행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모든 경험을 의미하며, 향후 수행할 직무와 연관된 프로젝트 경험, 실습 경험, 스터디, 교육·연수 등 포괄

반면, 채용 결정 시 우선순위가 낮은 평가 요소로는 ‘봉사활동’이 30.3%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는 ‘아르바이트’ 14.1%, ‘공모전’ 12.9%, ‘어학연수’ 1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만, ‘공모전’, ‘어학연수’, ‘어학점수’ 등은 ‘직무 관련성’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관련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경력직 선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입사지원서에서는 직무 관련 프로젝트·업무 경험 여부(48.9%)였고, 면접에서도 직무 관련 전문성(76.5%)으로 나타나 직무능력이 채용 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사지원서 평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는 ‘직무 관련 프 로젝트·업무경험 여부’ 48.9%, ‘직무 관련 경력 기간’ 25.3%, ‘전공의 직무 관련성’ 1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면접에서 중요한 요소로 ‘직무 관련 전문성’을 꼽은 기업이 76.5%로 압도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채용 결정 시 우선순위가 낮은 요소로는 ‘봉사활동’이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모전’ 18.2%, ‘어학연수’ 10.4%, ‘직무 무관 공인 자 격증’ 8.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만, ‘공모전’, ‘어학연수’, ‘어학점수’ 등은 ‘직무 관련성’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관련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이전에 필기 또는 면접에서 탈락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다시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경우, 이 를 파악한다는 기업은 전체 250개 기업 중 63.6%에 해당하는 159개 기업으로 나타났습니 다. 탈락 이력을 파악하는 159개 기업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119개 기업은 탈락 후 재지원 하는 것 자체가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관’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 탈락한 이력 자체가 향후 재지원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 해 불안한 취준생들은 ‘탈락사유에 대한 스스로의 피드백 및 달라진 점 노력’(52.2%), ‘탈 락 이후 개선을 위한 노력’(51.6%), ‘소신있는 재지원 사유’(46.5%) 등을 준비하면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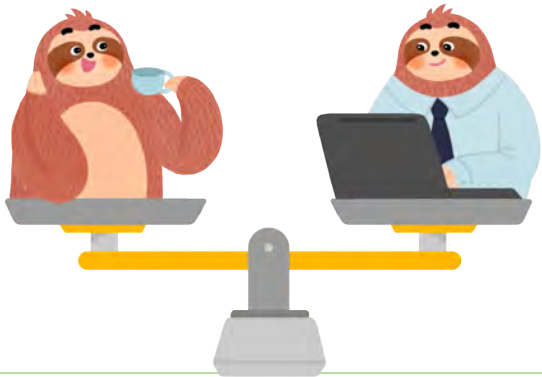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이 단순 스펙인 어학성적, 공모전 등보다 직무능력을 중 시하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반영해 취업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직무체험 기 회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21년 2.9만 명, 542억 → ’22년 3만 명, 1,394억 예정)
▲신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22년 170억 예정) 및 중소기업 직무체험 프로그램(’22년 50억 예정)

또한, 인성·예의 등 기본 태도는 여전히 중요하므로 모의 면접을 통한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22년 신설: 직무중심 채용 대비를 위한 취업코칭 솔루션(직무전문가 참여 모의면접, 직무 전문 취 업컨설턴트를 통한 컨설팅 및 멘토링) ▲개편: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면접 및 맞춤형 피드백 제공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채용의 양 당사자인 기업과 취업준비생의 의견을 수렴한 결 과, 조사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공감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청년들이 궁금한 업종, 내 용을 반영해 조사대상과 항목을 다변화하여 계속 조사해나갈 예정입니다.



7

임금명세서를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된다.
- ②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 ④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정기간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1월 9일 올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성과 및 역량’을 평가하여 7개 항목별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맡긴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공시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8항)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8년부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①적립금 운용 영역(3개 항목: 수익률 성과, 운용상품역량, 수수료 효율성), ②제도 운영 영역(4개 항목: 조직역량, 서비스역량, 교육역량, 연금화역량)으로 총 7개 항목입니다.

올해 평가는 현재 영업 중인 퇴직연금사업자(43개소, '20년 말 기준) 중 평가 참여를 희망한 33개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정성평가 등급을 세분화(4단계→5단계)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높였고, 선택 기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별 상위 10% 사업자와 함께 평가 항목 전체에서 고르게 높은 성과를 보인 전체종합평가 우수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전체종합평가 상위사업자는 7개 세부평가 항목 배점에 따라 집계한 결과,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국투자증권이 선정됐습니다.

평가결과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누리집(www.moel.go.kr/pension)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초과근로 감축,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등을 실천한 「근무혁신 우수기업」 65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사업에 참여하여 이행계획을 수립 및 3개월간 이행 후, 전문가 심사와 근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SS등급	주식회사 아우름플래닛, (주)에피바이오텍, 주식회사 미래와도전, 주식회사 삼정오토메이션, (주)지오맥스소프트, 주식회사 텐핑, (주)이랑텍, 주식회사 컨택틱, 주식회사 이지서티, (주)이너스커뮤니티
S등급	주식회사 미디어코어시스템즈, 주식회사 바른, 테이포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새누, 주식회사 엔공고, (주)서플러스글로벌, (주)티씨씨스틸, 주식회사 허블, 광성기업(주), (주)씨아이버원, 주식회사 브링코, (주)디노마드, 주식회사 디앤디클라우드, 주식회사 비에이에너지, 주식회사 데이터마케팅코리아, 주식회사 코아시아세미코리아, 주식회사 비지피웍스, 주식회사 트위니, (주)아주호텔서교, 지티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디어이플러스
A등급	주식회사 스튜디오나우, (주)코스알엑스, 우수AMS(주), 주식회사 이십사점오, 현대하이텍 주식회사, (주)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와이피, (주)셀메이트, 주식회사 휴메딕스, 주식회사 프라이빗노트, 주식회사 나눔에너지, 엔센스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리아로지스, (주)일신오토클레이브, (주)피닉스전자, 주식회사 피르마이노베이션그룹, 주식회사 바이오에비뉴,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콤포드시스템 주식회사, (주)코아아이티, 인피니티에너지 주식회사, 넥스트러너스 주식회사, (주)에이아이포블록체인, 주식회사 오픈놀, 주식회사 더나아짐, 코코넷사일로 주식회사, 행복다문화협동조합
재택 우수	주식회사 나인코퍼레이션, (주)정옥, 주식회사 네트아이티, 러닝플러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ABB파워그리드코리아, (주)에프앤자산평가, 주식회사 에이블런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노력을 실천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병역특례업체·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근무혁신 우수기업들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 사업 참여와 제도 마련을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서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근무혁신 우수기업들은 3년간 우수기업 혜택과 함께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정부는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워크넷 홍보 등 근무혁신 경험이 확산될 수 있는 인식개선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Healing



인생 2막, 불을 켜다

- 64 유미의 세포들 속 일터풍경
함께 살펴볼까요?
- 68 안녕 2021 · 즐길 수 없다면 피해라
- 70 변화의 한 가운데 선 우리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 74 12월 영화·음반·공연 추천
- 80 #내일스타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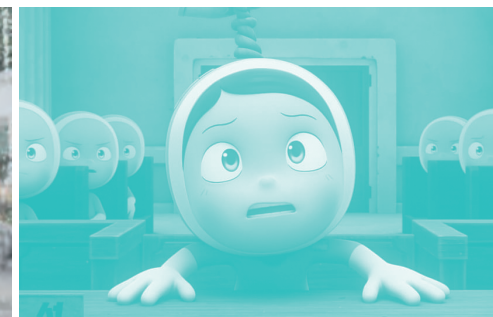


유미의 세포들 속 일터풍경 함께 살펴볼까요?

인기 웹툰 원작을 토대로 제작되어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끈 tvN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낸 흥미로운 세포들의 세계에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죠. 최근 시즌1이 종영되고, 다음 시즌으로 돌아올 것을 예고했는데요.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속 노동법 이야기를 함께 알아봅시다.



분주한 유미 세포 마을의 하루 “재무팀에서 마케팅팀으로 오라구요?”



주인공 유미의 세포들의 하루는 오늘도 분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성 세포는 세수 세포와 패션 세포를 깨워서 출근 준비를 하죠. 출근 후에는 유미가 일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함께 생산성을 높이는 맷돌을 열심히 굴립니다. 재무팀에서 회계일을 하고 있는 유미이지만, 대학 시절 작가를 꿈꾸면서 남몰래 글쓰기를 했기에 작가 세포도 유미 마을에는 살고 있죠. 어느 날 유미에게 뜻밖의 제안이 찾아옵니다. 유미의 sns를 눈여겨 보던 마케팅팀 유바비 대리가 유미에게 회사 공식 sns에 글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 것이죠. 반갑기도 잠시, 글을 잘 쓸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도 드는 유미.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 여기서 잠깐!

유미처럼 재직 중 새로운 도전을 앞둔 분이라면?

재직 중에서 전혀 다른 분야로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자 과정과 함께라면 말이죠! 퇴사를 하지 않고도 디자인, 제과제빵, 중장비 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K-디지털 크레딧 과정을 통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코딩 등의 신기술 분야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K-디지털 그레딧은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돕는 정부지원 훈련과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중장년 구직자 중 최근 2년 이내에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www.hrd.go.kr(직업훈련 포털)

야심 가득한 스타트업 창업가의 위기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유미의 남자친구인 구웅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 게임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3명으로 구성된 작은 회사이지만, 투자를 받아서 큰 회사로 키우겠다는 결심으로 밤낮없이 게임 개발에 몰두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기획자 새이와 구웅의 개인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회사를 관두고 다른 곳으로 취업해버린 것인데요. 작은 스타트업에서 한 사람의 빈 자리는 크기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동시에 투자도 예상대로 받지 못하면서 구웅은 결국 자신이 살던 집을 빼고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려 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루이는 “따박따박 월급나오던 때가 그립다”며 힘든 상황을 토로하고,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여자친구 유미는 속상할 따름입니다.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시작 “퇴근 후 데이트하러 가볼까?”

작가 세포의 활약으로 sns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마케팅팀으로 부서이동을 제안받은 유미. 오랜 고민 끝에 정든 재무팀을 떠나 마케팅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낯선 동료들과 업무 속에서 맘 졸이다가도 이내 잘 적응해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비로소 감성세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싶은 출출이 세포 또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바쁜 업무를 마감하고 이제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찾는 시간. 퇴근 후 구웅을 만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생각하며 짐을 싸는 유미의 표정이 밝습니다. 프라임 세포인 사랑세포 또한 기쁜 마음으로 데이트 계획을 세웁니다. 일도 사랑도 열심히 하는 유미와 세포들의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드라마를 통해서 만나보세요.

😊 여기서 잠깐!

구웅과 같이 창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면?

최근 창업을 준비하거나 스타트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청년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k-startup인데요.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의 도약 창업자 등으로 단계에 맞춰 지원을 합니다. 또 창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나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멘토링과 컨설팅, 네트워크 등도 열린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지원을 받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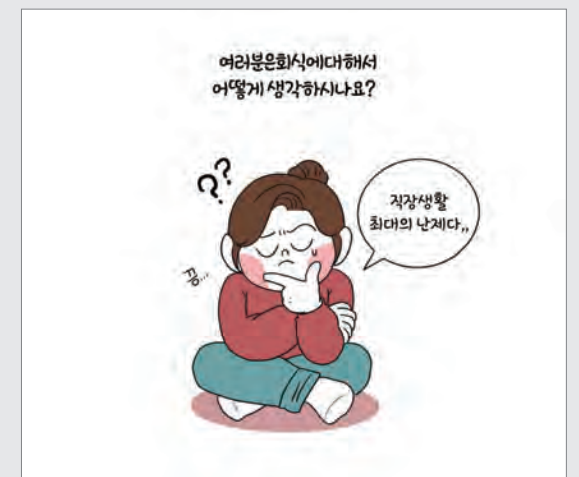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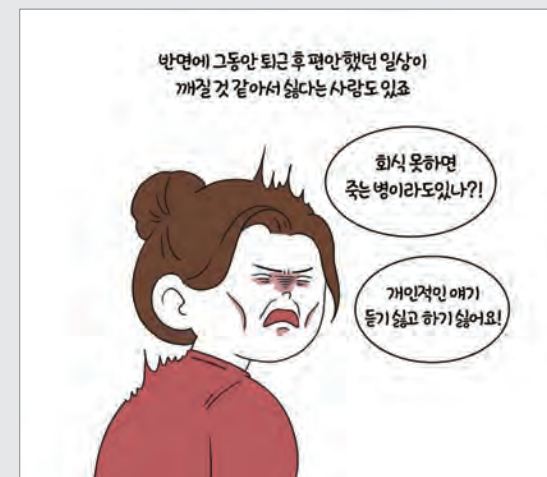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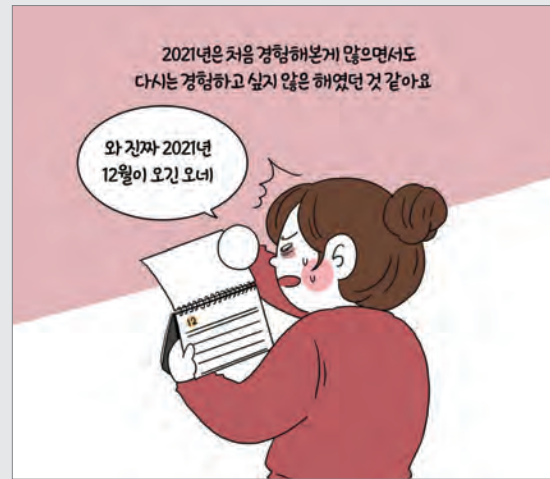
*문의: [www.k-startup.go.kr\(k-startup\)](http://www.k-startup.go.kr(k-startup))

😊 여기서 잠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위한 정책, 어떤 것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각종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단축 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기업 장려금을 지원하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을 통해서 정부지원과의 연계를 돕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죠. 그 외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호상휴가제 등의 유연근로제를 시행하고 관련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단축 관련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문의: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73)



변화의 한 가운데 선 우리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양한 변화 속에서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들...
어떤 고민을 안고 있나요?



Q1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직장을 퇴사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의 형편이 급격하게 기울면서 연봉이 동결되고 희망퇴직자를 받는다고 해서 자진해서 나왔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약 10년을 회사에서 지내다가 갓 프리랜서가 되어보니 모르는 것이 많다고 느낍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연말정산에 대한 걱정도 되고요. 이제 막 퇴사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퇴직금과 약속했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약 10년 치의 퇴직금이라서 적은 돈도 아니고, 전 회사에서는 곧 준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당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퇴사하고 전 회사로부터 퇴직금

과 위로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 또는 고소를 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합니다. 이 때 회사가 노동청의 지급지시에 따라 금품청산을 한다면 진정 또는 고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정지시 미이행 시에는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때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로 받지 못한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자가 홀로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엔 매우 벅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금액을 지급 받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회사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상당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저는 정수기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5년째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고객을 만나고 나름 보람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입하려 했지만, 사측에서 해주겠다고 말하고 쉬쉬하며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 회사의 동의 없이 제가 자체적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급여 기준이 8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매달 건당으로 월 급여가 측정되다 보니 평균적으로 80만 원이 넘지만 불의의 사고로 두어 달 쉬는 동안에는 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올해 7월 1일부터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종사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강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입니다.

다만, ①만 65세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 ②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의 12개 직종에 해당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자는 정수기 설치기사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월보수액을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당자 직접 신고시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되는 월보수액은 월 총소득금액에서 비과세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 때

필요경비는 직종별 경비율(18.4%~26.8%)을 반영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에서 회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0.7%씩 부담합니다. 만일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해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월보수액이 8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원으로 상실처리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당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에 대해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직급여의 경우 ①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②비자발적인 이직을 하여(일정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인정), ③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구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출산전후급여의 경우 ①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②출산일 전후 조정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고, ③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대상이 됩니다.

즉,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모두 노무 제공 기간 내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개인 사정에 의해 월보수액 80만 원이 되지 않아 공단이 직권 상실 처리한 기간이 있더라도 각 제도별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대학 졸업 후 유치원 교사로 1여 년간 일하다가 코로나19 시기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전직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디자이너로 전직하기 위한 수업도 2개월간 듣고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새로운 꿈을 키우는 것은 너무 좋지만, 사실 여전히 걱정됩니다. 몇 개월간 수업을 들으면서 별도의 수입이 없다 보니 통장 잔고도 점점 줄어만 가고요. 이제 곧 연말이 되는데 마음은 울적하기만 합니다. 전직을 위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기존 직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서류 등을 준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나서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중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기존 직장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고, 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체불, 폐업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인정됩니다. 고용센터에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말씀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기간이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

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I 유형(요건심사형)은 ①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로 중위 소득 50%(2021년 1인 가구 기준 913,916원 이하) 이하이고 ②재산이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있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I 유형 중 선발형, II 유형에 따른 지원대상자 요건이 다양하게 있음) 참여자의 최소한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을 받으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어떠한 명목에 의하든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검색 및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과 특히 본인의 현 상황에 부합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아 새로운 전직 준비를 도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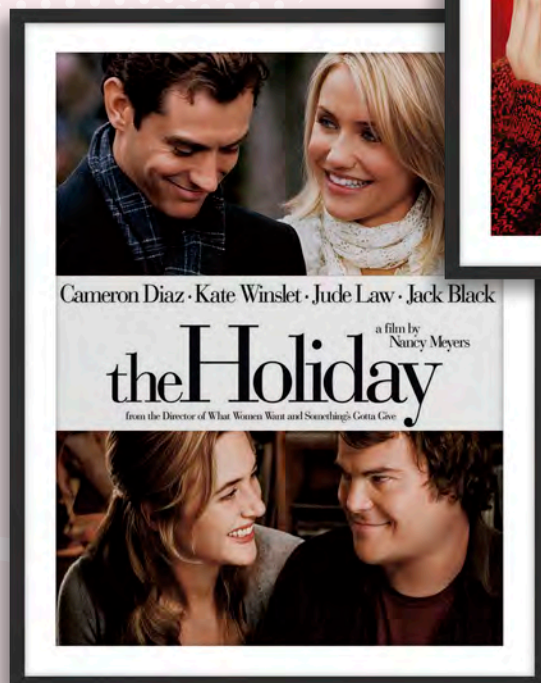
Q4 50인 규모 중소기업의 경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2년간 현 회사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온 신입직원이 첫 급여 날 이후 자신의 급여에 대해서 질문하더니 임금명세서를 요구합니다. 사실 지난 2년간 한 번도 급여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요. 대표님께 여쭙보니 굳이 그런 것이 필요하냐고 자르셨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 번거로워서 우리 회사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해당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고발한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인 건가요? 발행을 해야 하는 거라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가 의무가 아니었으나 올해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①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의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임금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근로자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만일 성명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에서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②임금지급일은 정기지급일을 의미하며, 가급적 정기지급일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임금 총액은 공제 이전의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금액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④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은 기본급,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그 금액을 의미하며, 만일 근로자별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다를 경우 해당하는 임금항목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⑤임금 구성항목별로 계산방법은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모든 임금 항목이

아닌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예컨대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재택근무시에는 미지급)되는 통근수당 또는 식대의 경우 출근일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월 15일 이상 근무 등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의 경우 해당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기재하고, 일·숙직수당의 경우 그 일수 기재하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경우 해당되는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⑥마지막으로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기재할 때에는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하되, 근로소득세 세율이나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은 근로자 한 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 중 회사의 편의에 따라 사용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영화 어떤 작품이 있더라?



10인 10색 크리스마스 이야기

<러브 액츄얼리>

휴 그랜트, 리암 니슨, 콜린 퍼스, 키이라 나이틀리 등.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옴니버스 식 작품입니다. 각각 다른 배경에서 인물들이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를 펼치는데요. 영국 수상과 가정부 이야기부터 어린 소년의 첫사랑과 오랜 가수와 매니저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스토리를 함께 보는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러브 액츄얼리는 스케치북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씬으로 유명한데요. All You Need Is Love라는 OST 또한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오래도록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케빈과 함께 하는

<나홀로 집에>

이 맘때 쯤이면 “크리스마스에는 케빈과 함께”라는 말이 관용어처럼 쓰이곤 하죠. 데이트나 약속이 없는 솔로들이 홀로 집에서 <나홀로 집에>를 보겠다는 의미로 쓰는 말인데요. 관용어로 쓰일 만큼 <나홀로 집에>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각종 채널에서 방영되곤 했습니다. 해리포터의 영화 감독으로도 유명한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 만든 영화로 크리스마스에 홀로 집에 있는 소년이 빈집털이 범들과 벌이는 하룻밤 소동에 대한 이야기죠. 다소 코믹한 전개와 크리스마스라는 배경으로 인해서 오래도록 가족영화로 사랑받아왔습니다.



로맨틱한 홈 익스체인지 휴가

<로맨틱 홀리데이>

LA에서 잘 나가는 영화 예고편 제작자로 살고 있는 카메론 디아즈. 하지만 연애문제 만큼은 마음처럼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남자친구의 바람 소식을 알게 된 후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나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죠. 영국의 아기자기한 오두막 집에서 살면서 칼럼리스트로 살고 있는 케이트 윈슬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남자친구가 일연반구도 없이 다른 여자와의 약혼을 발표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LA에서 날아온 전화 한 통에 2주간의 홈 익스체인지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설던 그녀들은 새로운 장소에서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까요?

연말엔 클래식한 캐롤과 함께



명실상부 크리스마스 캐롤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캐롤을 검색하면 언제나 상단에 뜨는 인물이지. 머라이어 캐리의 Merry Christmas(Deluxe Anniversary Edition) 앨범은 2019년 11월 재발매된 것으로 기존 크리스마스 앨범의 발매 25주년 기념으로 재발매되었습니다. 해당 앨범에는 캐롤 명곡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는 타이틀 곡으로 2017년에는 발매 23년 만에 빌보드 차트 10위권에 진입하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듣는 캐롤송 1위에 선정되는 등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앨범에는 <Santa Claus Is Comin' to Town>, <Christmas (Baby Please Come Home)> 등의 곡으로도 유명하답니다.



발랄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어줄

아리아나 그란데 <Santa Tell Me>

산뜻한 가사와 아리아나 그란데 특유의 시원한 가창력을 만나볼 수 있는 캐롤이지요. 2014년 유니버설뮤직에서 싱글로 발매된 곡으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국 차트 11위와 빌보드 차트 17위를 기록했고,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마다 상위 차트를 기록하곤 하죠. 크리스마스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애태우는 사랑스러운 가사와 낭만적인 분위기를 담은 곡입니다.



가사없이 즐기는 우아한 크리스마스 캐롤

케니 지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재즈 아티스트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Kenny G. 그도 크리스마스 앨범을 냈죠. 2005년 발매한 앨범 The Greatest Holiday Classics에는 <Faith>, <Miracles>, <Wishes> 등 지금껏 케니 지가 발표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크리스마스 앨범의 액기스가 모였는데요. 제니 지의 히트 캐롤 팝송을 두루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사없이 홀리데이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제니 지의 앨범과 함께 이번 크리스마스도 따뜻하게 보내보세요!

흥겨운 공연과 함께하는 홀리데이



유쾌하고 화끈한 크리스마스 난장
<뮤지컬 난타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2021/12/2~31, 12/18~26, 12/22~26
명동난타극장,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대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대한민국 공연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하고 전 세계 58개국 318개 도시의
투어 공연을 한 난타 팀에서 크리스마스 공연을 엽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크리스마스 감성을 담은 화려한 무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연
이 될 예정인데요. 연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유쾌하고 신나는 공연을 보고싶다면 난타 크리스
마스 공연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네요.



클래식하고 화려한 발레 공연
<호두까기 인형>
2021/12/18~3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936년 초연 후 35년간 연속 매진을
기록한 공연이죠. <호두까기 인형>은
유니버설발레단의 수준높은 공연 작품
인데요. 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하는 라이브 공연도 일부 공연
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공연장에는 트리 장식이 된 포
토존 등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도 있습니
다. 전체관람가로 가족들과 함께 관람하기 좋아 크리스마스 공
연으로 추천합니다!



잘 봐 언니들 콘서트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 콘서트>
2021/12/4~12/25
광주, 대구, 창원, 인천
댄서들의 화끈한 춤실력을 보여주며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은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가 연말에는 콘서트로 열기를
이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우승한 크루인 홀리뱅부터 흑, 라치카, 프라
우드먼 등. 경연에 참여했던 8크루가 모두 나와서 펼치는 화끈한 공
연 소식에 전국각지의 팬들이 티켓팅에 나섰다 하는데요. 올 한 해
전국민을 춤바람 나게 만들었던 8크루의 활약은 연말 전국투어 공연
에서도 계속되겠네요.

#내일스타그램

지난 달
늘봄이의 질문
월간내일
11월호 구독 소감은?

장인정신

건강칼럼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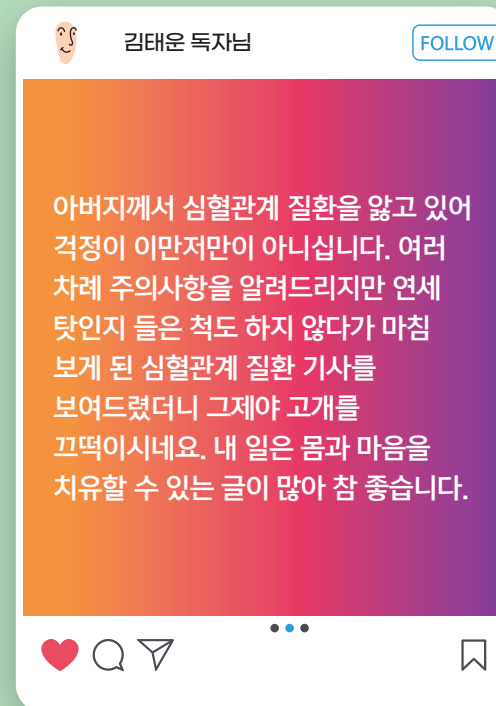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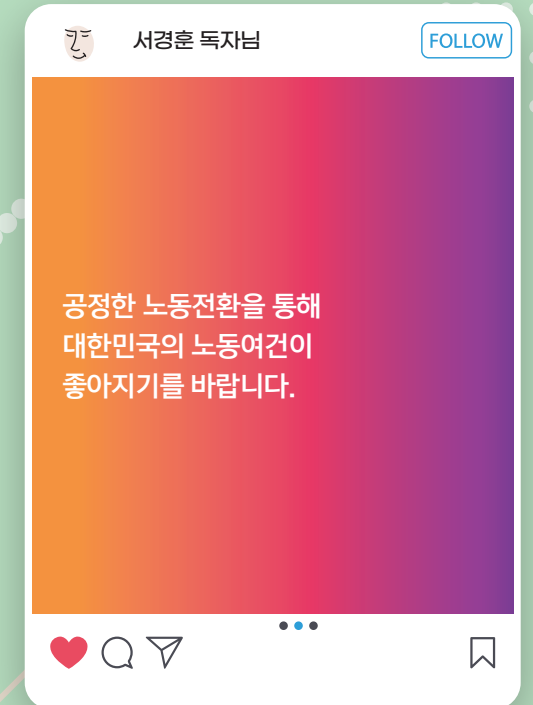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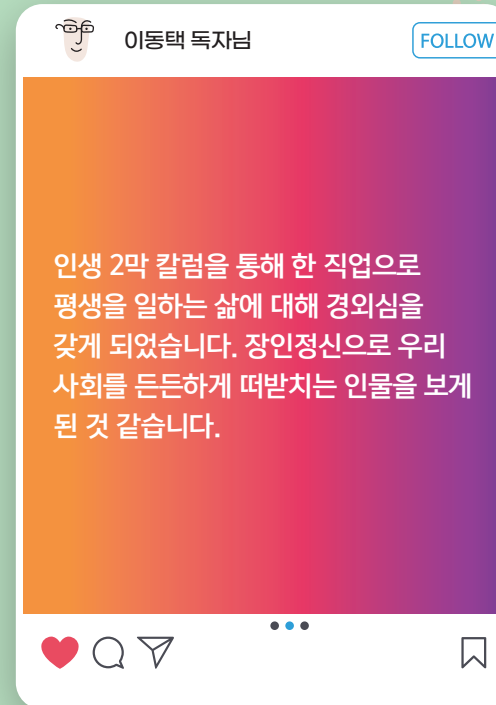
★★★★★



공정한 노동전환



월간내일 편집실로 날아온 독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이야기나 월간내일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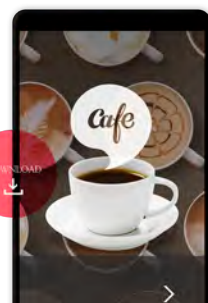


독자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우편이나 웹진으로
정답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는
애독자 분들의 우수 사연을 선정하여
지면에 공개합니다!



Hint. 20, 23 페이지 people 인터뷰를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월간 내일’을 검색 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